

연중 제13 주일
(교황주일)

기도서 P. 379 A해

제1독서(열왕하4, 8-11, 14-16a)

제2독서(로 마 6, 3-4, 8-11)

복 음(마 태 10, 37-42)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③ 3201

▶ 강론



시궁창 속의 십자가

강 덕 행 신부

지난 4월 14일 성주간 중에 본당에서 일어난 일이다. 본당 신자들은 20여년간 식당위에 생각없이 마구 내버렸던 온갖 쓰레기를 깨끗이 치움으로써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깨끗하고 밝은 세상으로 건너가신 예수님의 빠스카 신비의 뜻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기로 하였다.

쓰레기 속에는 썩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 썩은 물, 썩은 개들이 있어서 악취는 대단하였다. 쓰레기가 1미터 정도 파들어 갔을 때, 곡경이에 뭔가 걸렸다. 조심스레 파보니 1미터 정도의 큰 나무 십자가가 발견되었다.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와 본당 신자들의 가슴이 섬찟했고 모두들 '아니, 여기에 십자가가……' 하면서 아연 실색하였다. 모두는 그동안의 주님께 대한 무관심과 냉대에 대해 죄송함을 금치 못했다. 이 십자가는 우리들의 무관심속에 버려져 10여년간 온갖 악취속에서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강한 사랑을 가지고 인내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마태 10장 38절)"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온갖 악취를 풍기고 썩은 물이 푹푹 떨어지는 시궁창속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가! 그렇다면 더러워서 십자가를 질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십자가란 인간 사회에 해로운 존재로 저주를 받고 악을 행하는 자로 취급당하며, 폭력으로 제지당하고 사형에 처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십자가는 수치와 폭력과 처참한 피의 종말속에서 추방되고 죽고 파멸됨을 뜻한다.

십자가는 결국 썩고 악취 풍기는 자연적인 열열한 욕망들, 자연적인 삶에 대한 가치와 갈망, 물욕, 명예욕, 세상과 인간성에만 온갖 열의를 다하는 자신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고 죽고 파멸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강력한 결단으로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제자) 즉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이 되어, 마치 나비가 유충의 번데기 껍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세상에서 훨훨 날아 참된 자유와 생명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썩고 악취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시궁창속에서 구출하고 나도 그동안 악취나는 세상과 자신의 시궁창속의 속박에서 과감히 벗어나, 나비처럼 확 트인 보다 넓은 세상에서 훨훨 날아 주님의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마음껏 누릴시다.

<순창천주교회 주임신부>



방 세 개 짜리

아파트

「피에르 모로와 수상상을 위시한 새정부 자료의 면모나 생활태도가 우선 프랑스 국민들을 감동시켰다」라고, 어떤 신문이 적어내려간 프랑스 새정부의 인상은 참으로 순박하고 아름다웠다. 아니, 진짜 봉사자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나라 살림을 맡은 경제 재무상은 파리의 동남부에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산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취임식 행사를 취재하던 텔레비전 카메라는 뒷전에 파묻혀 남편을 지켜보고 있던 대통령 부인을 찾아내기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테니 두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법 하다. 하기가, 사람들은 첫출발은 제법 새마을음으로 그럴듯하게 시작하나 뒷끝이 지지분하기가 대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젠가 영국의 수상이 바뀌었을 때, 수상관저를 나서면 돌아갈 오두막 한 채가 없어서 절절했다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고위 공직자가 다 그러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단도 없는 것이 현실일지라, 그러한 귀감은 참으로 새겨 들고 배워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직자 윤리법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그러나, 소위 국민의 지도자요 봉사자들의 생활윤리를 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들이 수도자가 아닌 그들의 욕망을 거세하도록 요구할 수도 물론 없다. 다만 그들이 봉사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사는 솔선수범을 보이려는 것이다. 위에서 계속 맑은 물이 흘러내리면 아래의 흙탕물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은 화학처리(法)가 아닌,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흘러내려야 한다.

파리의 개선문 아래에서는 조출하면서도 엄숙하게 무명용사(無名勇士)에 대한 추모행사가 언제나 자연스럽게 거행되고 있다.

숲 정 이 산책



우리를 구하소서

☐ 교황주일

교황과 무류성

무류성은 모든 교황(각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베드로의 후계자를 교회와 분리시켜 교회 위에 앉히는 개인적인 특권은 아니다. 교황은 이를테면 교황이기 때문에 무류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무류성이 있는 것은 그가 모든 신앙인들의 최고의 교사로써 이 직분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말을 할 때이다. 즉 무류성은 직무자체의 자격이 아니라 직무가 수행되는 특정한 행위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이 그런 행위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교황의 무류성에는 그 대상에서 연유하는 또 하나의 제한성이 있다. 무류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교리 결정에 한한다. 예컨대 자연과학이나 정치문제에 관한 교황의 의견표시가 무류성이 있을 수는 없다. 무류성에 의한 교리결정의 목적은 특정한 가르침이 사실상 하느님에 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확정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교황의 무류성이란, 교황이 이런 조건과 제약하에서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할 때에 신앙인들을 오류로 이끌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교황은 무류성이 있다”는 말은 지나치게 간단한 표현이며, 그야말로 잘못된 표현인 것이다. 공의회와 문서들과 일치해서 “로마 주교에 의한 교도적의 행사는 엄밀한 조건하에서 오류가 없다”고 해야 옳다.

또한 교황 교리선언의 무류성은 주어진 엄밀한 조건하에서 도(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교회와 결코 동떨어져 한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황이 무류성을 주장하면서 선언하고자 하는 교리의 결정을 준비할 때에는 교회 전체의 신앙이 교황에게 의무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교회내에는 하나의 무류성, 즉 교회 전체의 무류성이 있을 뿐이다.

이점에 대해 교회의 가르침에 있어서 두드러진 요점이 되는 것은 교황이 최고 권위의 행사에 의하여 교리를 결정할 때에 무류성을 소유하는 이유는 교회가 항상 진리 안에 머물게 되어 있는 교회 자신의 지위를 교황에게 이를테면 양도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오히려 교황은 신앙과 교회의 일치성을 위한 보증으로서 직접 성령의 은사(카리스마)를 소유하며, 이에 의하여 교황의 그런 결정은 교회의 선의를 위하여 오류에서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황의 결정은 교회의 신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의가 교황에게 약속하는 성령의 도움이란 교황이 어떤 적극적인 의미의 영감이 약속되어 있다거나 새로운 계시가 특별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류에서 보호된다는 교회 신앙안에서의 효과일 뿐이다.

뿌리. 순교신앙의 뿌리를 찾자

교구 대학생 연합회는 창립 스므들의 성년(成年)을 맞이하면서 성인다운 자기반성과 자기확신을 찾고 있다. 여기에 자기정립(自己定立)운동의 일환으로 대학생과 젊은이를 대상으로 도보복상순례를 갖는다.

이것은 흔히 해오는 사적지(史蹟地) 방문의 성지순례가 아니다. 이 지방이 낳은 민족의 선구자, 한국 치명자의 원조, 한국 초대교회가 성인으로 공경한 윤지충님이 체포되어 치명장까지 압송되어온 진산에서 전주까지 기도와 목상을 하며 윤지충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님의 피가 내 안에도 흐르고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연약하고 사치스러워지는 삶의 자세를 휘 둘러보면 갈수록 이상기후가 기상조건으로 되어가는 세대에 우리의 신앙은 이대로 좋은가? 지(知)와 정(情)의 비옥한 연료의 풍토에 성장하는 대학인과 젊은이에게 정신이 확되는 반성이다. 전통의 포도(鋪道)위를 눈감고 따라가거나 감상의 무드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말의 성찬앞에 떨어지는 일은 박살을 내야한다. 그건 신앙의 국물이나 마시는 일이지 자기 뜻대와 논리(論理)와 사고(思考)의 건넬기가 없다.

이제 가달쁜 촛불일랑 끄고 햇불을 쬐자. 기타줄은 쫓고 징을 울리자. 종이소리나 내고 입농사나 짓고 냉은방 장치 속에 드러앉는 신앙일랑 불을 처지르자. 이 땅의 지방과 시골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牛)의 사람을 만나면 가슴에 뜻있는 칼을 갈며 청년과 나라를 걱정하는 지사(志士)의 신음을 한다. 요새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생 조국순례라게 숫제 청바지 통키타로 시골의 순박성을 죽썰어 놓는다. 전주교구의 뼈있는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청바지 대신 회개의 고복(苦服)을 입고 통키타 대신 솔로몬의 거문고를 가슴에 울리고 잡담대신 기도하고 영화대신 묵상하며 이땅의 상실된 청년상을 회복하자. 이상기후(異常氣候)에도 무성하고 모진 가뭄을 버티고 폭풍한설에도 견뎌내는 그 무서운 십자나무의 뿌리들이 비옥한 청춘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리자.

예수의 길, 순교자의 길, 신앙의 길, 삶의 길을 걸으면서 뿌리를 찾자. 우리의 뿌리가 약할 때 삶은 포기되고 우리는 죽는다. 정신질환적인 자칭 고급 지성인에게 가래침을 뱉지 말자. 그것이 내일의 우리 얼굴일지 모른다.

우리의 모임이 열이라도 좋다. 30대의 끈장을 맞고 18근의 큰 칼을 쓰고 목은 쇠사슬로 얽고 나무 갈고랑이로 오른 손을 칼 가장자리에 잡아 매인채 180리 12월의 겨울길을 걸었던 윤지충님의 길을 우리가 걷자. 인생은 걷는것. 신앙도 걷는 것, 걷는 걸 포기하는 것은 죽는 때 뿐이다.

〈전주교구 대학생연합회 제공〉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지여관 입구)
 전화 ⑥4989(사구팔구) ⑥4988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⑨ 0496
 金 樂 均(요새)

☐호성그룹이 만드는 세계적인 y샤쓰

원미.맨하탄 y샤쓰 특약점

베드로네 집

아카데미백화점 A-5호(6-4412)
안 철 만(베드로)

성심,해성학교 교직원 성서 공부에 열성,

본 교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양교(성심 중고, 해성 중고) 교직원들은 요즘 성서공부에 한창 열기가 대단하다.

엄기봉신부 지도로 이미 시작한 해성학교 교직원 30여명은 바쁜 업무속에서도 매주 화요일, 같이 모여 성서를 공부하고 있다. 또 성심학교에서는 비신자를 포함한 교직원 6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서모임을 갖고 매주 수요일 방과후 1시간씩 범석규 신부, 김준호 신부의 강의로 구약성서에서부터 본격적인 성서공부에 들어 간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바쁜 업무중에도 신앙 공부에 열을 올리고있는 양교 교직원들의 열성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공부에 게으른 우리들에게 좋은 모범이 아닐 수 없다. 부디 끝까지 좋은 모임 시간이길 빌어드린다.

□ 밤의 열기 전동 한솔 야학교(夜學敎)

고풍을 간직한 전동 성당(주임신부 김병엽)내의 한쪽에 상록수(常綠樹)의 주인공들이 부분꿈과 희망에 가득한 학도들과 어우러져 정열을 불태우는 곳이 「전동 한솔야학교」다. “一心”의 교훈과 “사랑”의 이념으로 80년 12월 1일에 설립한 이곳은 산업체 학교의 특례를 못받는 직장인들을 위함인데 최고령 43세까지 있으며 2년과정(중·고각각)으로 인격수양과 검정고시를 대비한다.

이학교는 현재 中 36명 高 23명의 학생이 있으며, 교사 21명(대학생 20 현직 교사1)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 야학의 어려움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만 그 중 ① 제정 ② 교사진 ③ 교실시설 ④ 교과서 구입 등이 심각하다고 한다. 뜻있는 분들의 손길을 기대해 본다. 8월중에는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인데 연락처는 전주 ②3222번이다.

김제 신용협동조합 새 회관으로 이전

김제성당(주임신부 오현택)구내에서 튼튼한 모습으로 성장한「김제 신탁」이 지난 6월 23일 새 회관을 준공하여 이전했다. 71년 1월에 자산 5,530원으로 출발한 이 조합은 자본금 9억6천8백여만으로 직원은 14명이며, 새 회관은 2층(연건평 168평)이다.

비약적인 발전에 찬사와 더 큰 지역사회 공헌 있기를 기대한다.

교구 산하 단체장 연석회의

81년들어 두번째로 「교구 산하 제단체」의 대표자(지도신부, 회장, 부회장, 총무)모임을 오는 7월 4일(토)오후 3시에 가톨릭 센타 회의실에서 갖습니다.

제 단체 대표자님들은 사목국 발송 공문과 아래를 참조 하시고 필히 참석 바랍니다.

교 구 산 하 제 단 체

번호	단	체	명	지	도	신	부	회	장	총	무
				장	(대	표)	부	회	장	총	무
1	평	신	도	협	의	회	김	봉	회	조	성
2	인	성	회	회	회	회	김	봉	회	조	성
3	정	의	평	교	위	사	김	봉	회	조	성
4	교	리	교	위	사	회	김	봉	회	조	성
5	중	고	생	연	합	회	김	봉	회	조	성
6	대	내	학	생	연	합	김	봉	회	조	성
7	대	내	학	생	연	합	김	봉	회	조	성
8	대	내	학	생	연	합	김	봉	회	조	성
9	베	지	오	마	리	에	김	봉	회	조	성
10	의	프	란	치	스	교	김	봉	회	조	성
11	의	약	사	사	회	회	김	봉	회	조	성
12	의	약	사	사	회	회	김	봉	회	조	성
13	매	스	폼	위	원	회	김	봉	회	조	성
14	구	르	위	실	로	회	김	봉	회	조	성
15	M.	부	한	가	정	운	김	봉	회	조	성
16	행	부	한	가	정	운	김	봉	회	조	성
17	성	가	대	연	합	회	김	봉	회	조	성
18	빈	첸	시	오	아	파	김	봉	회	조	성

요심이(412) 김병오

86년까지
광산촌개발
사업계획 발표

80년대
문화정책
발표

2천년대
수도권개발
계획발표

우리는 먹고
살고말포니
내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많이

직원 채용 공고

- 모집인원: 일반직 남자 ○명
 - 응시자격: 가. 만 25세~35세
세 병역필 및 면제자
나. 고졸이상 주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 나. 졸업
증명서 다. 병적증명서
라. 주민등록등본 마. 자
격증사본 각 1통
 - 접수기간: 7. 1~10 17: 00
접수처: 당 조합 서무계
(④ 4559)
 - 전형방법: 일반상식, 주산,
면접
 - 전형일시 및 장소: 81. 7. 11
17: 00 당 조합 사무실
 - 합격통지: 개별통지
※ 접수된 서류는 반환치않음
- 전주 파티마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교 성

회원 모집

본 연구원은 여성들의 취미 및 부업을 위한 여성 교실입니다. 바가지 공예를 배우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수시로 접수(개인지도)

조흥은행 2층 주택은행 김 정 자
←오거리 이경범 바가지공예연구원
방사선과의원 김 정 자(마르타)
중소기업은행

숲정이 원고는
화요일까지 도착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 생화·각종화본·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점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번배)·이 마리아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성직·수도자·사회 사목 세미나 : 7월 6일~7일 가톨릭 센터
2. 전주교구 도보 묵상 순례 : 일시-7월 22일~25일, 장소-진신→고산→전주, 주최-전주교구대학생연합회 대상-대학생 및 청년, 접수-7월 11일까지 (3,000원), 접수처-전북대 앞 가톨릭 학생회관(전화 39449)
3. 중·고생 연합회 회장단 회의 : 일시-6월 28일(월) 오후 1시, 장소-가톨릭 센터 3층
※ 각 분당 학생회장은 꼭 참석 바랍니다
4. 남자 2젠 모임 : 오늘 오후 2시 중앙성당에서 (전주시내)
5. 서용복·김정원·이재후·이종원 신부 영명축하연(7월 3일) 없습니다

(중앙)

전화 3651 3874번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환
사도 회장 박인규

1. 성모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양로원
 2.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 오후 2시 강당
 3. 영세식 : 오후 7시 30분 미사, 예비신자중 영세준비 확정된 신 분은 오후 6시 30분까지 강당에 집합
 4. 금요 성서연구 : 81년도 영세자는 필히 전원 참석 82년도 전진교리 대비(출석참고) 전신자 참석 바람
 5. 8월 15일 첫 영세체자 : 7월 4일(토)부터 교리실시 주일 학교 어린이-매토요일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8시 중고등학생-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6시
※ 대상자는 4일까지 사무실에 등록해 주세요
 6. 예비자 교리 : 7월부터 시작, 시간표 받기 참조
 7. 병자방문 : 매월 첫주·셋째주 화요일
 8. 남자 2젠 모임 : 오늘 오후 2시 성당에서
 9. 성심부녀회 월례회 : 7월 3일(금) 강당
 10. 사도회 : 상임위원회-7월 4일(토) 오후 7시 30분 사도회 월례회-7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11. 박신부님 영명축하 : 29일 10시 30분 미사후 축하식 있습니다, 예물은 28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533,360원

2. 첫 칠레 7 : 7월 4일(토) 오후 8시
 3. 축영명 : 김베드로 보좌신부님...축하식-공식미사후 축하연 29일 12시(사도회원은 미리와서 손님 접대에 수고 바람) 봉투 오늘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4. 성인 첫 영세체 교리(진복동) :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장소...김바울라씨 맥, 보좌신부 지도
 5. 애령회 월례회 : 29일(월)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 368,010원

(서학동)

전화 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영수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매주 첫째주일 공식미사 전(9시)
 3. 반상회 : 다음주부터 반상회가 있습니다(밤 8시) 1반-6월 30일(화), 2반-7월 1일(수), 3반-7월 2일(목), 4반-7월 3일(금)
 4. 각 썰 지도자 : 성화셀-이정식, 성가정셀-서인옥, 상록수셀-김영진, 해바라기셀-최경덕, 크로바셀-김미정 수고하시겠습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낙균 ② 김수길, 신자들의 기도-박영식
- 지난주 봉헌금 : 190,040원 교무금 : 234,400원

(노송동)

전화 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베드로 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전체
 3. 각 구역의 반장님들 명단 : 남노송동-김종표·박동필·이태영·이종재, 중노 1가동-박춘근·노계순·이병학·양민식·장성복·양광식·이대연·백옥년, 중노 2가동-전순자·박종길·모보일·박태복·안말순·문형수·한승희·전진남·송인분·김정순·박성진·박용·이치중·김영애, 인후동-강병희·강준승·김·김후경·이재열·김성룡·노인석·이수웅·이승기, 유아동-고여옥·김상상·김성권
 4. 전화번호를 접수하세요 : 사무실에 빠짐없이 접수
 5. 미사시간 변경 : 어머니미사는 매주(화)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6.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73,540원

(숲정리)

전화 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7월 5일 공식미사 후 회의실
 2. 요안회 월례회 : 6월 28일
 3. 누갈다 부녀회 : 7월 4일 오전 10시 회의실
 4. 주일학교 후원회 : 7월 3일 오후 2시
 5. 주일 공식미사중 치명자의 모후에서 어린이들을 돌보아줍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맡겨주세요. 학생들은 토요일 화성미사에 나와 주세요
 7. 청년회에서 매주일 저녁미사후 성당 청소를 합니다
 8. 차주전례담당 : 해설-이귀례
독서-① 유현웅 ② 송용호, 기도-황현도
- 지난주 봉헌금 : 341,460원

(덕진)

전화 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양영도
사도 회장 유상열

- ※ 29일은 본당신부님 영명축하입니다. 축하연은 없습신부님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1. 예비자 교리 : 일요일 오전 11시 보좌신부님 지도 수요일 저녁 8시, 많은 예비자 교리반으로 인도바람
 2. 성서연구 : 전신자 대상입니다
 3. 성서, 성가집, 필기도구 지참 매주(금) 저녁 8시
 3. 진복회 월례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4. 정원 제조작업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L·M 팀별로 화단정리 바랍니다
 5. 미사시간 안내 : 주일-오전 6시, 9시, 10시 30분, 오후 3시, 저녁 8시, 월·수·목-오전 6시, 금요일-오전 10시, 화요일·토요일-저녁 8시
 6. 부녀회 월례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498,805원

(전동)

전화 3222번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준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축! 영명 : 본당신부님 영명, 축하식-공식미사 후
 2.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 30분
 4. 유아세례 : 다음주(7월 5일) 학생미사 후
 5. 다음주 구역회합 일정
7월 1일 오후 2시-풍남동4구 조용원(토마스)맥
1일 오후 8시-동완산4구 이순자 ① 1904
2일 오후 2시-남노1구 양희석 ① 1452
3일 오후 8시-동교4구 김병오 ② 1503
 6.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 최병래 ② 박중구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 고수창 ② 박도식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 강동수 ② 변해석
 7. 성가정회 : 7월 1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 474,230원

(복자)

전화 5238번

주임 신부 김택남
보좌 신부 김희성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상임위원회 : 오늘 공식미사 후

(파티마)

전화 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축! 영세자 43명 탄생 :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성모회 월례회 : 오늘 10시미사 후
 3.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4. 중학생 셀 : 주일 오전 9시(당분간)
 5. 교황주일 : 교황님의 패용을 받고 성금에 정성을!
 6. 성당 확성기 보조금(10만원) 기증 : 새 영세자 일동
- 지난주 봉헌금 : 211,200원 교무금 : 303,000원